

태양광 산업의 세계 최고의 전시 시리즈 현장

중국 Intersolars 2011



2011 Intesolar China 현장 스케치 현황

점점 본격적인 베이징의 추위가 시작되는 무렵, 중국 국립 컨벤션 센터(CNCC) 안은 태양에너지라는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 있었다. 2011년 세 대륙에 걸쳐 3,400여 개 참가 업체와 110,000명 이상의 방문자를 기록한 Intersolars는 태양열 산업의 세계 최고의 전시회 시리즈이다. 이는 제조업체, 공급업체, 유통 및 서비스 제공업체간의 자체적인 설립체로서, 20년 동안 국제 전시회 및 컨퍼런스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었다. 각 이벤트마다 해당 지역 내에 태양 전지, 태양열 기술 및 시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일찍이 유럽, 북미, 인도에서 열렸던 Intersolar가 드디어 이번 중국 베이징에서도 개최되었다. 12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개최된

Intersolar China는 오전 일찍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접수처는 예약객 및 현장 방문객으로 붐비고 있었다.



태양광 패널을 비롯한 다양한 태양광 관련 제품

태양광을 이용한 대표적인 에너지 활용은 태양광 발전으로 사막이나 지붕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이다. 이번 전시회에서도 각 부스마다 비슷하지만 다른 여러 태양광 패널이 출시되었다. 또한 태양 전지모듈(부품)을 비롯하여 태양광

전지, 태양광 충전기, 태양광 변압기, 태양광 소프트웨어, 태양열 가로등 등 각 산업체에서 쓰이는 태양에너지 관련 제품들이 주를 이루었다. 그 외에 간접적으로는 기존의 평판형에서 벗어난 U자형 태양열 집열기(U Tube Solar Collector), 태양열 측정 및 제어 시스템, 태양열 금융 및 관측(태양에너지 관련 잡지) 및 rolled ball screw(나사) 제품 등도 전시되어 있었다.

SJ 이노텍의 태양 스크린 프린터



외국 기업 참가도 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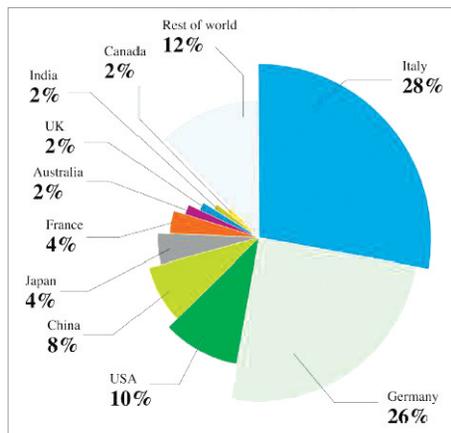
이번 전시회에는 총 121개 부스로 구성되어 외국 기업의 참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영국, 이스라엘,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 대만 등이 참가하였다.

중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부스가 설치된 국가는 InterSolar 주최 측인 독일로서 총 12개 업체들이 대거 참가하였다. 또한 수많은 외국 부수 내에서 5개의 한국 태양광 업체들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 태양광 장비 국산화 선봉기업인 SJ 이노텍(태양 스크린 프린터), T&Solar와 경원(K Solar) (PV 모듈), CTC(Sputter), DISEC(단결정 절단기)가 한국 태양광 산업의 대표주자로 참가하였다.

중국의 태양열 시장 전망

중국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2011년 3GW 이상의 태양광 발전 용량을 예상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최근 향후 12차 5개년 계획(2011~2015)에 따르면, 2015년까지 공식적으로 보급하려던 신 재생에너지 태양광발전(PV) 목표치를 수정해 기존 10GW에서 15GW로 늘렸다. 그동안 중국에서 생산하는 태양광 제품의 95%를 해외시장 수출에 의존하던 중국 관련 기업들은 유럽 경제 위기와 함께 찾아온 시장의 위축에 따라 크게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전 세계 태양광 시장



출처 : 매일경제망